

“우리도 함께 뛰자”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D-15

20여명 건강 질주... 의료봉사까지

광주 수완병원

“따뜻함이 넘치는 봉사와 실천을 다짐하며 달려겠습니다.”

한국 프로야구 선수협회 지정병원인 수완병원 임직원 20여명이 3·1 전국 마라톤대회에서 건강한 질주를 다짐하고 있다.

마라톤은 직원화합을 다지는 귀심점이다. 2011년 1월 개원한 수완병원은 이해 3·1 마라톤에 출전해 힘찬 첫 출발을 했다. 지난해에도 대회 출사표를 던지고 건강하게 봄을 맞이했다.

마라톤을 통해 직원들이 한데 뭉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만큼 올해도 3·1 마라톤과

KIA 타이거즈 공식 후원 병원

3월 1일자로 종합병원 승격

“봉사·실천 다짐하며 함께 달려요”

함께 새봄의 각오를 다지기로 했다.

직원들의 건강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한 질주를 위한 봉사활동도 펼친다. 응급상황을 대비해 3·1 마라톤 대회 현장에 엠블런스 2대와 의료진을 지원한다.

수완병원은 스포츠와 밀접하다. 프로야구 선수협회 지정병원으로 9개 구단 선수들이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

인 시스템을 구축했고, 최신 치료 장비와 기능성 재활운동 치료 및 평가 장비를 도입해 스포츠 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 스포츠재활 전문병원에서 다년간 스포츠재활 경험을 쌓은 전문 트레이너가 평가 및 운동처방을 하며 과학적이고 체계화된 재활 운동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다.

운동선수를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재활 운동 프로그램, 축만증 및 자세교정이 필요한 환자들, 비만 및 대사성 질환 환자들의 운동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스포츠를 통한 봉사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공식 후원병원으로 매년



시민들의 건강한 질주를 위해 수완병원 임직원들이 3·1 마라톤 경기장 인파를 누비게 된다.

선수들을 초청해 사인회와 바자회를 열고 있다. 수익금은 ‘투게더 광산 수완동 위원회 나눔사업’에 전액기부 하고 있다.

또 최첨단 레이저장비 및 피부 관리실을 구비한 피부과와 수완지구 유일의 ‘체의총격과쇄세기’를 도입한 비뇨기과도 개설해 한층 더 향상된 진료를 하고 있다. 황토와 편백 친환경 병실로 조성된 재활요양병동들

증축하고 24시간 간병인 상주 시스템을 통해 환자 및 보호자들이 보다 더 마음 편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길식 대표원장은 “2013년 3월 1일자로 보건복지부의 인준평가를 거쳐 종합병원으로 승격된다. ‘정형외과 관절센터’를 특화시켜 족부, 슬관절, 어깨관절, 척추분야에 대학 교수급의 의료진을 초빙해 모든 관절질환

치료의 메카로 거듭나겠다”며 “개원한지 2년 만에 지난 2월 4일, 누적 내원초진환자 6만 번째라는 기록을 달성했다. 지역주민의 애정 어린 관심과 애용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마라톤을 통해 직원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또 믿음이 가는 진료를 위한 봉사 정신을 다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야구 국가대표팀 윤석민이 13일 오전 대만 도류시 도류구장에서 열린 전지훈련에서 볼을 던지고 있다. /연합뉴스

WBC 대표팀 ‘지옥의 평고’

첫날부터 강도높은 훈련

13일 대만 도류시 도류구장에서 펼쳐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표팀의 첫날 훈련 분위기는 오전 10시부터 50분간 워밍업이 진행될 때만 해도 평화로웠다.

이후 10분간 롱토스(Long Toss) 훈련이 진행될 때에도 선수들은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여유를 보였다.

하지만 오전 11시 대표팀 사령탑인 류중일 감독이 방방이를 쭉뚝부터 선수들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싹 사라졌다.

류 감독은 첫날 훈련부터 악명높은 ‘지옥의 평고’로 선수들을 본격적으로 조련했다. 류 감독의 평고는 야수의 발놀림이 빠르지 않으면 잡아내기 어려울 정도로 까다로

운 타구만 보낸다고 해서 악명이 높다.

류 감독이 1루수 포지션 경쟁 중인 이승엽(삼성), 이대호(오릭스), 김태균(한화)에게 집중적으로 평고를 보내자 선수들의 말수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특히 1루수와 유격수 포지션과는 달리 정근우와 최정아 홀로 버티 2루수, 3루수 평고 훈련은 보기에도 안쓰러워 보일 정도였다.

류 감독은 유격수 포지션에서 강정호(넥센), 손시현(두산)과 경쟁 중인 제자 김상수(삼성)가 평을 더들을 때는 ‘철공산!’이라며 안타까움이 담긴 질책을 아끼지 않았다.

삼성의 연고지인 대구에서는 팔공산이 유명하데, 김상수에게는 그의 등번호인 7번을 접목한 ‘철공산!’이라는 별명이 따라다닌다.

이대호는 평고 훈련을 끝내고 나서 “7년 만에 이렇게 힘든 평고 훈련은 처음!”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김태균 역시 “너무 힘들다. 장난이 아니

다”라는 평을 내놓았고 최정은 가쁜 숨만 내쉬며 아무 말 없이 턱아웃으로 들어갔다.

류 감독은 ‘첫날부터 너무 센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코치진들의 손이 모자라서 내가 거둔 것일뿐!”이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흘렀다. /연합뉴스

배드민턴협 김중수 전무 선임

대한배드민턴협회는 13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제 53차 이사회를 열어 김중수(53) 국가대표 감독을 새 전무이사로 선임했다.

김 전무는 화순군청 감독(1995~2006년), 국가대표 감독(2002~2010년, 2012년 8월~현재) 등을 지낸 베테랑이다.

김 전무는 이달 말부터 이어지는 유럽(독일·영국·스위스) 대회까지는 국가대표 선수단을 이끌 예정이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2군리그

4월 2일 개막

프로야구 퓨처스리그(2군)가 4월 2일 개막한다.

KBO(한국야구위원회)가 13일 2013 프로야구 퓨처스리그 경기 일정을 발표했다.

한화와 상무구단의 경기장이 바뀌면서 올 시즌에는 남부리그 6개 팀(KIA, 롯데, 삼성, NC, 상무, 넥센)과 북부리그 5개팀(한화, LG, 두산, 경찰, SK)으로 재편성되어 리그가 운영된다.

4월2일 개막전을 시작으로 8월28일까지 총 530경기가 진행되며 남부리그 소속팀들은 동일 리그에 속한 팀과 14차전, 북부리그 팀과는 6차전씩 100경기를 치른다. 북부리그 소속팀들은 동일 리그에 속한 팀과 14차전, 남부리그 팀과는 6차전씩 92경기를 갖는다.

경기는 오후 1시에 시작되며 7~8월 휴식기에는 변경이 가능하다. 경기가 우천 취소되면 예비일 및 다음날 더블헤더로 진행된다. 다음날 경기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대진 둘째 날 더블헤더가 열린다. 7~8월에는 실시하지 않으며 더블헤더 1차전은 7회까지만 치른다.

퓨처스 올스타전은 7월18일에 열리며 장소와 시간은 추후 결정된다.

엔트리 등록 규정이 신설돼 출장 자격 선수 수가 26명으로 제한되며 경기 시작 1시간30분 전까지 엔트리 등록을 마감한다. 엔트리에서 말소될 경우 3일간 재등록이 불가하며, 경찰과 상무 야구단은 해당 규정에서 제외된다.

독립구단인 고양원더스와 일본 프로야구 소속의 소프트뱅크 3군과의 번의 경기가 진행된다. 번의 경기의 경우 공식 기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KIA는 4월2일 넥센과 홈에서 개막전을 갖고 올 시즌 일정을 시작한다. 소프트뱅크와는 8월1·2일, 고양원더스와는 8월 9~11일 대결을 벌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은선

이한샘

김수범

“광주는 내 운명이죠”

광주 FC 김은선·이한샘·김수범 선수

스카우트 유혹 뿌리치고 새 시즌 준비

광주 FC의 2013년은 시련속에 시작됐다. 새해 첫 훈련이 진행됐던 1월 3일 광주에서 두 번의 겨울을 났던 선수들이 대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광주가 배출한 첫 신인왕 이승기, 장신 공격수 박기동·김동섭, ‘말행’ 박호진, ‘외국인 콤플렉스’ 복이와 주앙파울로, 수비수 노병석 등.

은선 “미음 편하게 축구 하고싶어”

한샘 “신인 지명해준 구단에 감사”

수범 “감독·코치님이 믿어줘 좋아”

새로운 출발이라는 선수들의 기대감 뒤에는 2년동안 기쁨과 슬픔을 나눈 이들을 떠나 보낸 서글픔이 남아있었다.

훈련이 시작되고 전지훈련도 막이 올랐지만 타 구단에서 호시탐탐 선수들을 노리며 광주는 소용돌이의 중심이었다. 1부 승격을 위해 더 빨리, 더 강하게 시즌 준비를 해야 했지만 앞선 2년보다 광주의 겨울은 더뒀다.

위기를 넘긴 광주, “감사합니다”라는 따뜻한 말이 나왔다.

2012시즌 라인업을 채운 공격진이 한꺼번에 이적을 한 가운데 미드필더 김은선과 이한샘, 수비수 김수범도 이적 시장에서 이름이 오르내렸다.

특히 김은선과 김수범은 2년의 시간을 통해 실력을 검증받았던 만큼 유혹의 손길이 컸다. 이들은 빠른 패스를 통한 빠른 패스라는 광주의 새로운 축구 스타일의 핵심 자원. 여범규 감독은 간곡하게 이들을 잡았다. 2부 강등,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주변의 우려. 하지만 선수로서 ‘위험한 선택’을 한 이들은 “감사합니다”라고 말한다.

김은선은 “나 자신에 대한 도박일 수도 있다. 주변에서 ‘축구 인생의 최고’의 실수가 될 것이다’는 얘기도 했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항상 축구를 하면서 나를 원하는 팀에 가야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해 왔다. 그레아더 좋은 대우를 받고 마음 편하게 축구를 할 수 있다. 감독님이나 구단에서 나를 이렇게 원하는데, 확실하게 마음을 돌리고 남겼다는 의지가 컸을 때 편하게 운동을 할 수 있었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수범의 마음속에도 아쉬움 대신 감사의 마음이 자리했다.

김수범은 “고민이 있었지만 감독님과 남기일 수석코치께서 오히려 강한 믿음을 주셨다. 마음이 빨리 편해졌다. 인정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즐겁게 다시 선수를 편하게 축구를 하는 게 목표다. 많이 도와주시니까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2012시즌 신인왕 후보로 주목을 받았던 이한샘에게도 ‘광주는 내 운명’이다.

이한샘은 “나간 선수들이 좋은 선수들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나는 아직도 이곳에서 배울 점도 많고 배워야 할 것도 많다”며 “광주에서 나를 지명할 것이라는 생각도 하지 못했었는데 광주 선수가 돼서 신인으로 30경기 이상을 뛰었다. 감사한 곳이고 책임을 지고 가야하는 게 있다”고 말했다.

광주 FC가 시련의 겨울을 뒤로하고 새로운 봄 그리고 감독의 겨울을 그리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기차표/항공권/승선권
국제선 할인항공권 판매**

(주)대원여행사

062)526-7000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www.daewontour.com

후원 : 남해고속

흑산도상리봉 등반및 자유관광

출발일	당일(찍수날 출발)
여행비	주중 88,000원 주말 98,000원
포함사항	광주-목포 왕복교통비/흑산도 왕복패션 흑산도 중식 제공
불포함	흑산도 버스일주관광 선택 (15,000원)

홍도 / 흑산도 특가 이벤트

출발일	3월1일~2일(1박2일)
여행비	주중 158,000원
포함사항	광주-목포 왕복교통비/ 흑산도, 홍도 왕복패션/ 숙박비 (5인이상 합숙)/ 식사비(4식)/ 홍도유람선/ 여행자보험
불포함	흑산도 버스일주관광 선택 (15,000원)